

# 세계의 희귀 나비

달 러 지 폐 에 사 용 되 는 날 개 가 루

‘나블나블’ 나는 모습에서 그 어원이 유래된 나비는 몸이 파괴되기 쉽고 죽으면 쉽게 분해돼 없어지기 때문에 화석으로 남는 일이 드물다. 최근에는 환경 오염과 각종 개발로 인해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하는 것조차 더욱 어려워졌다. 영화 ‘빠빠옹’에 나오는 주인공의 문신으로 등장했던 물포 나비, 세계 곤충도감에 유일하게 한국 국적으로 올라있는 은판 나비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나비들의 신비로운 모습을 만나보자.

| 정리 | 장미경 기자 · rose@donga.com | 사진 | 우승구 · (주)나비 대표이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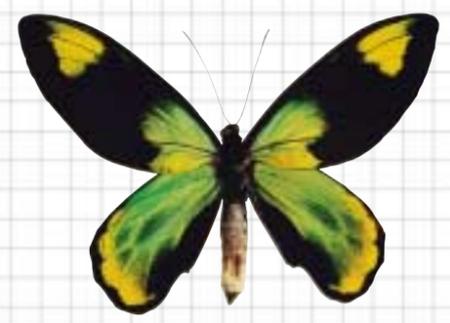


## | 붉은점모시나비 | *Parnassius bremeri*

한국, 중국, 시베리아 등에 넓게 분포하는 대표적인 북방 계열 나비로,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가 6.5×5cm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가장 대표적인 나비다. 5월 초순에서 6월 초순경에 출현하며, 양지 바른 풀밭 위를 천천히 날아 엉겅퀴나 기린초 등에서 꿀을 빨아먹는다. 기린초가 많은 곳이 점차 경작지로 이용되면서 서식지가 많이 파괴됐다. 요즘 들어서는 강원도나 경북 일부 지역에서 서만 발견되는 실정이다. 날개에 붉은 반점이 있고 개체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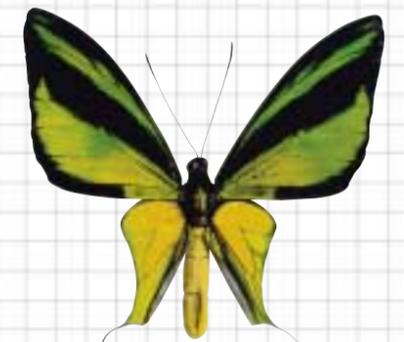


B i r d w i n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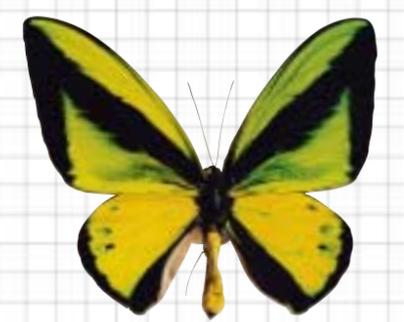
**| 빅토리아 나비 |**  
*Ornithoptera victoriae*

학명의 'Ornithoptera'는 라틴어의 'Bird'와 'Wing'의 합성어며, 종명의 'victoriae'는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분리된 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여러 아종이 있다.



**| 메리디오날리스 나비 |**  
*Ornithoptera meridionalis*

버드wing 나비 종류 중 가장 크기가 작으며, 특히 아래 날개가 작아서 잘 날지 못한다. 파푸아뉴기니아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채집이 어려워 매우 비싸게 거래되는 나비다.



**| 골리아스 나비 |**  
*Ornithoptera goliath*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나비로,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가 무려 17×12cm이다. 주로 파푸아뉴기니아에 서식하며, 버드wing 나비 종류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갖고 있어 햇빛에 비춰질 때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색깔을 발한다.

◀ 버드wing 나비의 한종류이며, 주 서식지는 인도네시아다.

GAMMA

최초로 채집된 나비가 유럽인에 의해 총으로 채집된 나비였기 때문에 이들 종류에 '버드wing' (birdwing)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이 나비는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의 승인 없이 각국간 자유로운 반·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이유로 세계적인 수집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희귀종이 된 나비이다. 활짝 편 날개의 크기는 보통 10-20cm 정도이다.

메리디오날리스 나비는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가 9×8cm이고, 햇빛을 좋아해서 나무꼭대기에 주로 앉아 있으며 땅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암컷은 낮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쉽게 채집할 수 있다. 암컷의 크기는 작지만, 직경이 3mm나 되는 큰 알을 낳는다. 하지만 5-7개 정도만 한번에 낳을 수 있다.

골리아스 나비의 알은 지구상의 모든 곤충알 중 가장 큰 것으로 직경이 무려 4.7mm이다. 크기가 크고 색이 아름다워 나비 수집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아 일부에서는 유충을 채집해 사육한다.

GAMMA



# M o r p h o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나비의 하나인 몰포 나비. 전세계 2만종의 나비 중 가장 화려한 종류로 중·남미에서만 서식한다.

## 1 | 몰포 헤쿠바 | *Morpho hecu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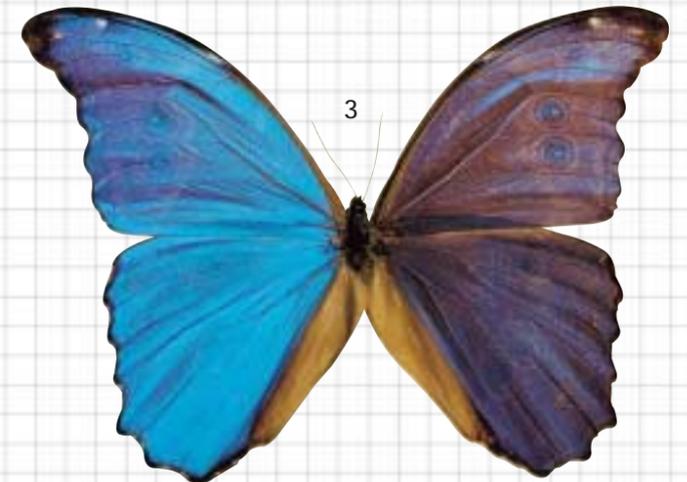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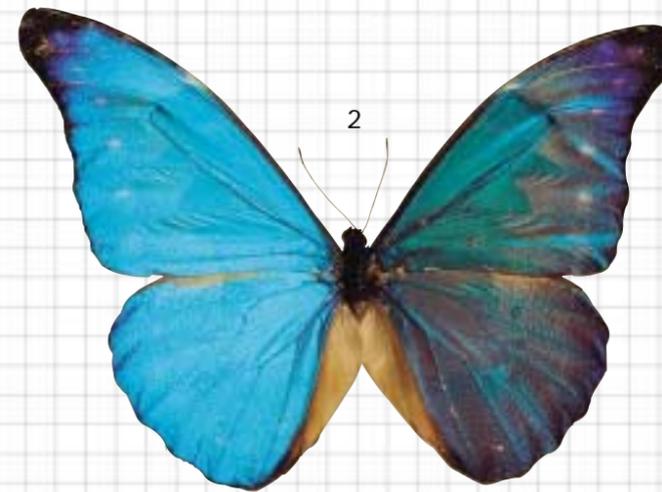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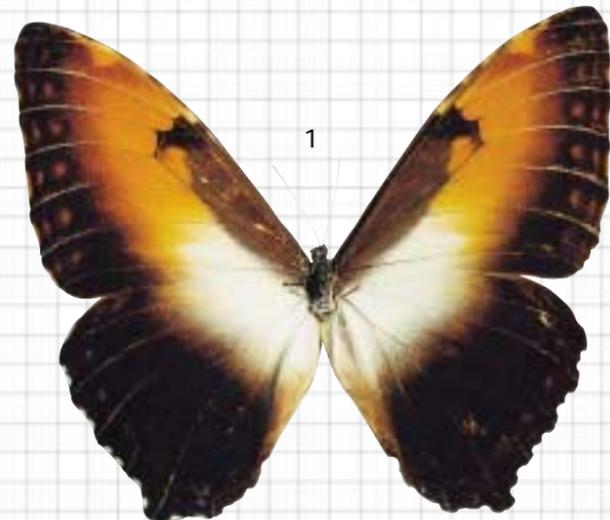
몰포 속(屬)에 포함된 종류 중 금속성 광택이 없는 나비로,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가 12×10cm 정도다. 이 나비는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붉은 빛깔을 띠고 있어 '태양나비'라고도 불린다. 암컷과 수컷의 형태나 색이 크게 다르지 않다. 날개에 비해 몸통의 크기가 작아 빠르게 날지 못한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매년 5천만 마리의 몰포 나비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미의 아마존 지역이 많이 파괴돼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 2 | 몰포 레테놀 | *Morpho rhetenor*

몰포 나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갖고 있는 나비로 마치 사파이어 가루를 뿌려놓은 듯하다. 수컷이 몰포 종류 중 가장 아름다운 반면 암컷은 광택이 없는 연한 갈색이다.

## 3 | 몰포 디디우스 | *Morpho didius*

화려한 금속성 광택이 특징적인 나비로, 영화 '빠빠웅'을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의 화페(달러)는 이 나비의 금속성 광택의 날개 가루를 이용해 만들었다. 수컷들에게는 화려한 광택이 있는 반면 암컷들은 광택이 없으며 채집하기 매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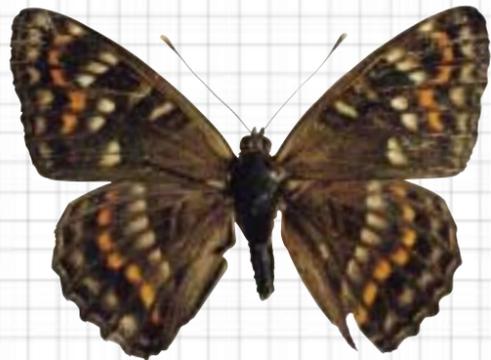




**| 유리창나비 |**  
*Dilipa fen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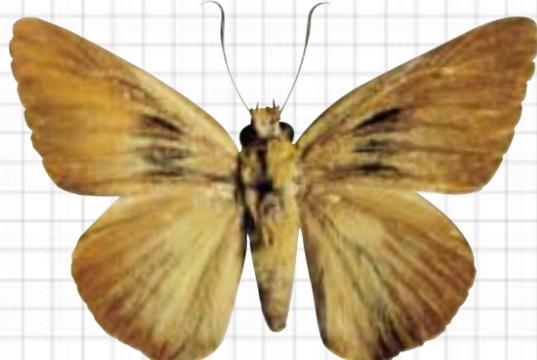
앞날개의 끝부분에 투명한 막질의 타원형 무늬가 있어 유리창 나비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산지의 계곡 주변이나 숲 가장자리에 살며, 날개를 활짝 펴고 재빠르게 날아다닌다. 수컷은 오후가 되면 계곡 주변의 나뭇가지 끝이나 앞에 앉아 세력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수컷에 비해 암컷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월동은 번데기로 하며 이듬해 봄에 성충이 된다. 우리나라의 북부, 중부, 남부, 그리고 중국이나 티베트에 분포한다.

## Korean Butterf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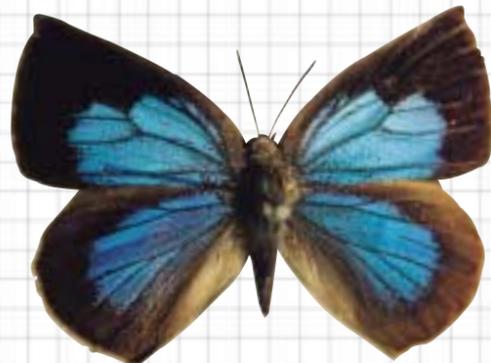
**| 홍줄나비 |** *Limenitis pratti*

네발나비과의 나비로, 채집하기 매우 어려운 나비 중 하나다. 날개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특히 날개 끝부분을 따라서 밝은 붉은색 줄이 있어 다른 종과 구별된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날개 뒷면의 흰색 띠가 넓다. 현재는 설악산과 오대산에서만 채집 기록이 있다. 아직까지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은 나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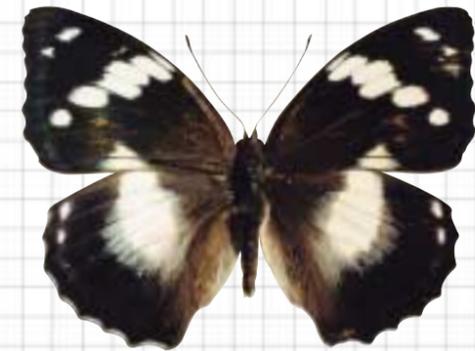
**| 큰수리팔랑나비 |** *Bibasis stariata*

크기가 비교적 큰 나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나비에 속한다. 예전에는 경기도 광릉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른 아침과 해질 무렵 활동한다.



**| 남방남색부전나비 |** *Narathura japonica*

남방남색부전나비는 날개의 색깔이 매우 짙은 남색이다.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섬에서 채집되고 있는 매우 희귀한 나비다. 제주도에서는 가시나무가 많은 숲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은판나비 |** *Minathyma schrenckii*

세계 나비도감에 서식지가 한국이라고 쓰여있는 나비로,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날개 뒷면은 마치 구름이 떠있는 것처럼 검은 바탕에 흰점이 있으며, 날개 뒷면은 은색 바탕에 줄무늬가 있다. 길가나 계곡 주변의 습지에 잘 모인다. 이 나비가 특히 좋아하는 곳은 화장실로, 산간 계곡의 화장실에서는 틀림없이 볼 수 있다.



**| 밤오색나비 |**  
*Athymodes mycteis*

한동안 상당히 희귀한 나비로 평가받다가, 강원도 영월에서 채집지가 발견된 이후 모든 생활사가 밝혀졌다. 애벌레는 느릅나무 잎을 먹고 월동한다.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는 5.5×4.5cm 정도다. 날개 바탕색은 검은빛이 나고 흰점 따무늬가 있으며 날개 뒷면은 담황색 빛이 난다. 수컷은 앞날개 가장자리 끝선이 깊이 들어가 있고, 암컷은 약간 굽어있다.



**| 큰주홍부전나비 |**

*Lycaena dispar*

날개 전체가 밝은 주홍빛깔을 띠고 있어 햇빛 아래에서 날아다닐 때 아름다운 색을 자랑한다. 가로×세로 날개의 크기는 4.3×3.3cm 정도이다. 예전에는 북위 37도 이북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인천 주변의 섬과 김포, 강화, 한탄강, 임진강에서도 채집되고 있으며, 충남 당진 지역에서도 채집되기도 한다. 애벌레는 소리쟁이 종류 의 잎을 먹고 월동한다. 서식지가 농경지 주변이라 제초 작업과 농약 살포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진다. 영국에서는 1800년대 개발과 채집으로 멸종해 유럽 본토 지역의 나비를 이주해 정착시켰다.

<p>알</p> 	
<p>유충</p> 	<p><b>  산호랑나비의 생태   <i>Papilio machaon</i></b>                  호랑나비과의 나비로, 우리나라 나비 중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나비다. 1년에 두번 성충을 볼 수 있으며, 애벌레의 먹이인 미나리나 당귀, 당근 등을 키우는 밭에서 볼 수 있다. 수컷의 몸에서는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처음 부화했을 때 애벌레의 색깔은 검정색이지만, 몇번 탈피 하고 나면 초록과 검정 줄무늬가 아름답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때부터 애벌레가 먹는 양이 많아져 사육할 때 어려움이 많다.</p>
<p>번데기</p> 	
<p>알</p> 	
<p>유충</p> 	<p><b>  사향제비나비의 생태   <i>Atrophaneura alcinous</i></b>                  사향제비나비의 수컷은 채집 직후에 몸에서 사향 냄새가 나는데, 이 때문에 사향제비나비라는 이름 이 붙여졌다. 수컷의 경우 날개의 표면이 검고 약간의 광택이 있지만, 암컷은 황갈색으로 광택이 없 다. 가슴과 배의 양 옆에 붉은 털이 있어 다른 제비나비류와 쉽게 구별된다. 알은 아름다운 주황빛을 띄고 있으며, 1년에 두번 5월과 7-8월에 성충을 볼 수 있다. 번데기로 겨울을 나며, 애벌레는 검정 과 흰줄무늬가 있다. 우리나라의 북부와 중부, 남부, 그리고 일본, 중국, 타이완 등에 분포한다.</p>
<p>번데기</p> 	

사진 제공 : (주)나비 ([www.nabinabi.co.kr](http://www.nabinabi.co.kr))

(주)나비는 수십년간 오로지 나비만을 연구해온 기업이다. 2개의 나비연구소를 천연의 환경에 조성해 나비의 생태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나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기업이다.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우리나라 나비를 비롯해 아름다운 세계의 나비들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